

## 축산업계의 고통은 해결 되었는가?

**3월** 한 달은 IMF체제 출범 100일을 기해서 지난 100일간 변화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다. IMF 초기 근검 절약하고 모든 행동에서 자제하고 그간의 잘못된 소비문화를 반성하는 자세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교통은 다시 막히기 시작하고, 강남의 림싸롱은 예약이 힘들고, 3월 15일 서울근교 골프장은 예약이 어렵고, 해외여행이 다시 증가해서 이에 소요되는 외화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 이었다. 마치 100일만에 IMF체제에서 졸업한 듯한 착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TV에서 어느 식품이 나쁘다 하고 보도되면 대개는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가 2주 후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다고 한다.

한때 이상구리는 채식주의자를 TV에서 초청해서 몇 주간 육류, 우유 등 축산물이 마치 우리 몸에 해롭고 채식만이 건강식인 것처럼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 1개월 정도 소비가 위축된다고 한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 버리는 것이 큰 문제이다.

돈콜레라 발생이 적어지면 백신을 소홀히 한다든가, 매 월 몇 건씩 양돈장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데도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리고 화재가 단절되지 않는 등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 때문에 입는 손실도 크다.

쉽게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여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다. 대개 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쉽게 잊어 버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은 것은 오래 기억한다.

그간 신농정에 투자된 자금이 올바르게 투자된 것인가에 대한 중간 평가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오래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UR협상때 농민들의 시위와 함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으나 얻은 것 보다는 협상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만 맛보았다. 내년에 WTO는 UR농업 재협상이 시작되는데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IMF체제 이후 국민의 가치 기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축산인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변하고 있으며, 호화사치 품목이 아니면 국산과 수입품이 공정하게 국내에서 경쟁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신토불이(身土不二)만 외쳐서는 이제 힘들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이 국산이고,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것이 외제라는 인식의 확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소비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않든 우리는 IMF라는 외국의 자본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을 유지하고 있고, 축산분야도 GSM이라는 자본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쇠고기, 돼지고기도 GSM자금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IMF체제에서 내년도에 재개되는 UR농업 협상은 우리가 얼마나 농업을 지켜 나갈 수 있는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정치권도 북풍 정국에서 고스톱 정국으로, 다시 북풍 정국으로, 예산 정국·지자체 선거정국으로 계속 변하면서 정치권은 쉽게 민생문제를 잊어 버리게 되고 국민들도 여기에 동조하게 된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주요 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축구경기를 관전한다고 한다. 한때 월드컵 예선이 국민의 고통을 한때나마 잊어버리게 하였는데, 최근에는 축산업계가 지난 12월의 고통과 자돈 폐사, 생업을 포기한 양돈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려야 할 것과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들이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IMF체제를 경술국치에 비교하던 많은 언론들도 국민과 함께 모든 것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 **養豚**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주요 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축구경기를 관전한다고 한다. 한때 월드컵 예선이 국민의 고통을 한때나마 잊어 버리게 하였는데, 최근에는 축산업계가 지난 12월의 고통과 자돈 폐사, 생업을 포기한 양돈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려야 할 것과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들이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